

# 광주세무사회 50년사 발간...“든든한 조세 조력자”

미래비전 조망...회가 ‘세무사를 만나요’ 발표도  
납세자 권익 보호·따뜻한 전문가집단 책임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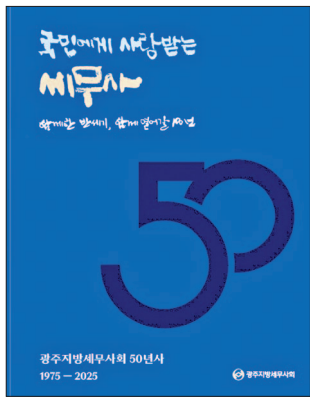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반세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100년을 향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50년사’를 발간했다.

광주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지방국세청 국장단, 광주지역 세무서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전국 회장단, 이민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0년사 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기념식은 제막식, 경과 보고와 함께 광주세무사회가 만든 회가(會歌)인 ‘세무사를 만나요’(조경완 작사·정승채 작곡) 발표회 등으로 진행됐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 함께 한 반세기, 함께 걸어갈 100년’이라는 부제가 붙은 50년사는 단순한 연대기를 넘어 지난 50년 광주세무사회의 자랑스러운 발자취를 담았다.

지난 1975년 26명으로 출범한 광주세



무사회는 현재 광주·전남·전북 지역에 900여명의 회원 세무사가 ‘납세자의 든든한 조력자, 정의로운 조세 전문가’로서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50년사는 총 5부와 부록으로 구성해 광주세무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 비전을 입체적으로 조망했다.

제1부 역사는 ‘뿌리 내리기(1975~1989)’, ‘성장과 도약(1990~2009)’,



광주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지방국세청 국장단, 광주지역 세무서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전국 회장단, 이민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0년사 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혁신과 미래(2010~2025)’의 세 장으로 나뉜다. 2부에는 세무사회의 오늘, 3부에는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 동반자 역할 조망, 4부에는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제34대 회장단의 활동 상황을 담았다.

5부 우리들의 남겨진 이야기는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세금 교육, AI 시대 세무사의 미래’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통해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50년사가 회원들에게는 자긍심과 사명의 원천이

되고 시민과 독자들에게는 세무사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신뢰를 제공하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광주세무사회는 시대의 중심을 잡고 국민 속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따뜻한 전문가 집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격변하는 경제 환경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세 제도 속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투명한 자세로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유은학원 장학재단 이사회 현판

재산 4억...올해 3억 모금·6000만원 장학금 지급  
마성우 이사장 “무거운 책임감 느껴 소명다할 것”

재단법인 유은학원충동문화장학재단은 최근 광주 남구 소재 유은학원충동문화관에서 재단 현판식 및 제3대 이사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마성우(광주상고 25회) 신임 이사장을 비롯해 나명엽(광상 20회), 오찬교(광상 21회), 박진(광상 22회), 김운세(광상 25회), 김영석, 선홍규(이상 광상 27회), 윤종재(광상 28회), 윤서영(광주여상 17회), 오경미(광여상 19회), 김은숙·김철남(이상 광여상 20회), 정창원(광상 35회) 이사 등 이사 13명 전원과 임호만(광상 34회) 감사가 참석했다.

이날 첫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과 함께 기본재산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올해 3억원의 장학기금을 모금하고 6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마성우 이사장이 5000만원, 박진 이사가 2000만원, 오찬교·김철남 이사가 각 1000만원, 윤서영 이사와



재단법인 유은학원충동문화장학재단은 지난 29일 오전 광주 남구 소재 유은학원충동문화관에서 재단 현판식 및 제3대 이사회 출범식을 가졌다.

정계두(광상 39회) 동문이 각 500만원, 국형곤(광상 40회) 동문이 130만원, 윤종재 이사와 김희녀(광여상 16회) 동문이 각 1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부 또는 약정해 모두 1억3300만원을 모금했다.

마성우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유은학원충동문화장학재단은 유은동문들이 만든 특수한 장학재단이므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은동문 장학재단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 인성 3막에 접어든 저의 소명으로 알고 미래까지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 유은학원충동문화장학재단은 지난 2018년 설립돼 초대 박석남(광상 11회) 이사장과 2대 한상원(광상 23회) 이사장에 이어 올해 마성우 3대 이사장이 취임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국립광주과학관 지역 밀착 ‘헌혈 봉사’ 동참 첨단산단 사회적 가치 실현 커뮤니티 회원기관 협력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최근 첨단산단 사회적 가치 실현 커뮤니티 회원기관들과 함께 ‘사랑의 헌혈 봉사’에 동참했다.

지속적인 혈액 수급난 해소와 지역 기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협력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들을 비롯해 첨단산단 소재 기관의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헌혈버스가 첨단산단 내에 직접 방문해 근무 중에도 손쉽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유원찬 홍보협력실 연구원은 “이번 헌혈 봉사는 첨단산단 사회적 가치 실현 커뮤니티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실천적 나눔을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



립광주과학관은 앞으로도 이에스지(ESG) 경영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 동구 동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돌봄 이웃 200세대에 먹거리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 광주 동명동 지사협, 돌봄 이웃 사랑 실천

### 200세대에 먹거리 세트 전달

광주 동구 동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돌봄 이웃 200세대에 먹거리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착한가게와 동명동 지사협 위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예산으로 마련됐다. 동명동 지사협은 돌봄 이웃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형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형숙 위원장은 “이번 나눔으로 돌봄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경란 동명동장은 “명절 위로품 전달을 통한 온정 나눔이 주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동명동 지사협 위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광주 동부소방 의용소방대, 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광주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동구에 기탁했다.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지역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을 물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안전을 지키는 민관 협력 단계로, 이번 장학기금은 대원들이 뜻을 모아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마련했다.

서봉렬 의용대장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자 장학기금을 준비했다”며 “지역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택 청장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의용소방대원들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기금은 지역 인재들이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동구 인재육성장학기금은 현재 약 38억7000만원이 조성돼 있으며, 매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동구에 기탁했다.



나주경찰서 산포파출소가 범죄취약지에 대한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 나주경찰 산포파출소-자율방범대 ‘합동순찰’

### 야간 범죄취약지...시설보완 등 점검활동도 병행

나주경찰 산포파출소가 자율방범대와 간담회를 갖고 범죄취약지에 대해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새해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자율방범대(대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또 새로운 범죄취약지를 발굴하고, 순찰 노선을 추가해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담겼다.

산포파출소와 자율방범대는 간담회를 마치고 범죄발생우려지역인 외국인 밀집

지역(원동촌), 비상활주로, 학교와 병원 주변 등에서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가로등과 CCTV 설치 등 시설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점검활동도 병행했다.

이남미 산포파출소 소장은 “새해에도 자율방범대 등 지역사회와 협력방범체제를 구축하겠다”면서 “범죄취약지에 대한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이나 교통사고, 외국인대상 범죄와 외국인 범죄 예방활동 등도 함께 진행해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